禪·敎·諱… 대승불교 傳法 역사를 만나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
中 선종사찰 순례 현장



중국 최초 사찰 백마사 박물관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순례단 스님들이 중국 측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구법승 현장 스님의 동상. 뒤로 대안탑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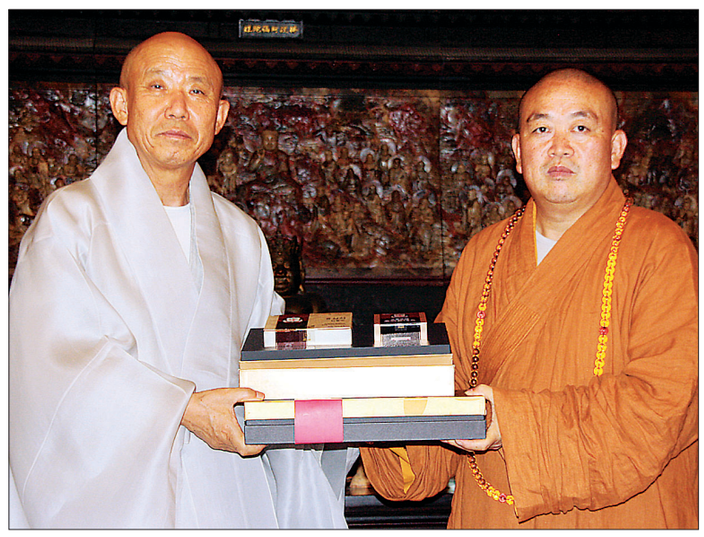
8월 24~30일 中 서안 등서
증명 법사로 원각 스님 참여

소림사·법문사·대자은사 등
선종·교종·역경 사찰들 순례
禪·敎, 아시아 불교사 '한눈에'

불학원 견학·신행현장 참관
현대화된 교육시설 등 감탄
중국불교는 현재 '屈起 중'
韓불교 변화 계기 마련해야



원각 스님과 순례단이 법문사의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원각 스님과 소림사 방장 스융신 스님이 선물을 교류하고 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동아시아로 전래되면서 전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경전의 유입으로 한역(漢譯) 역경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문자와 언어로 전해졌다.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오면서 전해진 부처님의 마음법은 '선(禪)'으로써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근간이 됐다. 그래서 〈선가귀감〉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禪)의 가르침이 되고,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敎)의 가르침이 됐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선종부터 교종까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연수 프로그램 '중국 선종사찰 순례'는 선종뿐만 아니라 교종과 동아시아 역경의 시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특히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중 한 명인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해 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24일 법문사에서 입재식을 가진 순례단은 25일부터 본격적인 순례 일정을 시작했다. 서안과 낙양에서는 주로 교종과 역경 사업과 관련된 유서 깊은 사찰들을 만났다.

초당사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의 역경의 의지를 목도했다. 구마라집 스님은 대승불교 반야부 경전을 한역해 전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장 스님의 사리가 봉안된 흥교사와 구법의 원력과 회향처인 대자은사에서는 옛 구법승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숭산 소림사에서는 초조암, 이조암 그리고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피해 몸을 숨기고 9년간 면벽수행을 했던 면벽굴을 찾았다. 동아시아 선의 역사가 시작점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순례단 입승 소임을 맡았던 효원 스님(광명사 주지)은 "소림사는 초조암과 이조암, 면벽굴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선은 동아시아로 널리 퍼졌다"면서 "전등 법맥을 친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개가 무량하다. 더욱 수행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불교 변화 그리고 교류

법문사, 흥교사, 대자은사 등에서는 변화하는 중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법문사는 중국불교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목도했다. 2007년 개원한 법문사 불학원은 현대식 시설을 갖췄으며, 현재 비구 학인 60명, 비구니 학인 80명이 수학하고 있다. 순례단이 찾았던 당시에는 방학 중이었지만, 일부 학인 스님들은 인터넷 강의 등을 들으며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법문사 시설 설명을 위해 나온 주지 현공 스님은 "유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사회 구제를 위한 봉사와 실천행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자은사에서는 중국에서 가지는 불교의 위상을 만났다. 사찰 인근 국제문화사업광장 천장에 설치된 파노라마에서는 중국 불교 문화재와 관련한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주요 도심 사찰에서는 가족 단위 신도들과 20~30대 연인들이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며, 산책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가이드를 맡았던 장순옥 씨는 "중국불교는 개혁 개방이후 복원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불교와는 상대적으로 젊은 스님들이 많다. 신도들 역시 젊은 거사들 위주"라고 설명했다.

"불교가 사회 갈등 치유해"

순례단의 순례기간 참배한 사찰에서는 모두 방장과 주지 스님들이 직접 나와 환대했다. 소림사 방장 스융신 스님들을 비롯한 각 사찰 방장들은 스님들과 차담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중국 측 스님들과의 환담에서 불교가 가진 선의 정신이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원각 스님은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입장을 내려놓고, 중간마저도 버리고, 대화해야 지혜가 나온다"면서 "세계인들이 조화·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불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의 법을 이은 한국과 중국은 일불제자의 형제 국가"라며 "양변을 여의고 본래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유롭고 활발발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불교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참가 스님들 "견문 넓히는 계기"

선과 교의 중심된 사찰을 참배한 순례단은 그곳에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시원을 만났다. 그 안에는 서역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난 구법승의 원력이 있었고, 전해진 경전을 번역했던 역경승들의 치열함이 있었다. 또한 선객들이 품은 서슬파란 취모검(吹毛劍)도 만날 수 있었다.

순례단 스님들도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시원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불교방송 진행자인 성전 스님(남해 염불암 주지)은 "강원 선배인 교육부장 스님의 권유로 순례에 참여했다"면서 "선종의 맥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 신도들과도 함께 순례를 오고 싶다. 스스로 수행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돈성 스님(대구 보광원 총무)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래된 선종 사상을 배우고 싶었다"면서 "옛 스님들의 구법처를 따라 갈 수 있던 것도 의미가 깊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하겠다는 원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화엄학림)의 강사 명선 스님과 학인 스님 등 6명은 함께 순례에 동참했다.

학인으로 수학 중인 원소 스님은 "학림 대중 스님들과 졸업여행을 계획했는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좀 더 의미있는 순례를 생각했다. 그래서 종단 연수를 참여했다"면서 "사중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현장에서 순례하며 만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명선 스님은 "학림장 일초 스님과 주지 정영 스님의 후원과 배려로 종단 순례 연수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서 "방장 스님과 함께 사찰을 참배하고 교류하는 모든 현장이 교육에 일환이다. 진정한 순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중국 서안 일원= 신성민 기자

중국 사찰 기행 연재는 1115호부터 격주로 연재됩니다.

"한국불교, 시대의 요구를 살펴야 한다"

Interview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풍족한 현대인, 정신은 피폐
사회 갈등, 본질 못 봐 발생
양변 여의고 본래면목 찾아야

"이번 순례는 날씨가 많이 도와줬고, 중국 스님들이 환대를 잘해줘서 여법하게 순례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상, 원측, 혜초 등 옛 스님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스님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구법을 위해 길을 올랐고, 대중에게 회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한국불교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 중국 선종사찰 순례의 증명법사로 참석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사진〉은 순례의 의미를 이 같이 평가했다. 또한 한국불교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전망도 내렸다.

원각 스님은 순례를 통해 중국불교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법문사의 젊은 학인 스님과 도심 사찰에서 만날 수 있던 20~30대 불자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는 스님도 신도도 모두 노령화 추세입니다. 부처님 사상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근본정신은 달라지지 않죠. 한국불교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불교 사상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유치원을 운영한다던가 젊은 사람들이 사찰에 올 수 있는 신행·교육프로그램, 단기출가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인사도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스님은 현대사회의 적지 않는 문제와 갈등을 불교 사상을 기반해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순례를 거쳐 스님이 설한 법문과 중국 스님들과의 환담에서 내내 힘줘 말한 부분이다. 결국, 무엇이든 본질, 본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오는 데 누가 시비를 걸어서 밤새 싸움을 했습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자기와 싸운 게 빗자루였습니다. 중생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념과 사상에 따라 시비하고 싸웁니다.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도 태양이 없습니까? 모두 우리가 업에 가려 본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현대사회가 선(禪)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본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벌고 성공해도 상대적 만족감은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은 선의 바탕에서 이뤄집니다. 선은 양변을 여의고, 중간도 내려놓고 내 본래 마음, 자성청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활발해지며, 지혜도 나옵니다. 이 같은 선의 정신을 한국불교가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이번 순례에 참석한 대중들은 지금 시대에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응하게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Interview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



현대화된 교육시설 감탄
생활불교의 중요성 느껴

"중국대사관을 통해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지만, 행정 미숙으로 선물을 부족하게 가지고 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대중 스님들의 협조로 순례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사진〉은 순례 진행의 미숙한 점을 진솔하게 참회하며 말문을 열었다.

종단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진각 스님이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중국불교의 교육환경이다. 특히 순례 첫날 견학했던 법문사 불학원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중국불교의 도제교육은 막연한 교리 공부만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법문사 불학원은 교육 시설부터 학인까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봉사와 실천행까지도 함께 교육하는 것을 보고 '중국불교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는 명산대찰과 조사 은덕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순례 참여 대중들이 한국불교 발전과 불법 홍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순례를 통해 알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연수의 목적은 옛 스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선방 수좌 스님들은 구법승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포교를 하는 스님들은 민중과 함께하는 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은 종단 스님들을 위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